

■ 지방선거 핫코너

이용섭 “사회적 일자리 창출 힘써야”

이용섭 국회의원(광산 을)은 21일 “광주에서 주당 36시간 미만인 취업자 비중이 2005년 10.6%에서 2009년 14.2%로 크게 늘었다”며 “이는 일자리 질이 크게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윤난실 “광주, 빗물 순환도시 만들 것”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빗물 순환 도시” 공약을 발표했다.



김장환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을 돕기 위해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유창중 21일 선거사무소 개소

유창중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가 21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영암군수 후보 경선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영암군민들이 지난 20일 광주시 동구 학동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 앞에서 영암군수 후보 경선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달라며 시위하고 있다.

임호경 화순군수 예비후보 등록

임호경 전 화순군수가 21일 화순군 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박병학 도교육의원 선거사무소 개소

6·2지방선거 전남도교육의원 제1선거구(목포·완도·해남·진도·신안)에 출마하는 박병학 전남도교육의원이 20일 목포시 용당동 2호광장 인근 건물에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이명자 광주시의원 선거사무소 개소

광주시의원 남구 제1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이명자 광주시의원이 지난 20일 남구 월산동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전남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161명 등록

전남도선관위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수와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군수 후보 36명과군의원 후보 125명 등 모두 161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 광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공모

민주당 광주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공모가 29일부터 4월1일까지 실시된다. 21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공심위는 전날 제3차 회의를 갖고 광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공모일정을 확정했다.

민주 광주 동구청장 후보 3명 ‘적격’

민주당 시당은 21일 광주 동구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응모한 유태명 동구청장, 임흥채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 조영복 전 동구의회 의장 등에 대한 공심위 후보자 면접 심사결과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차관급 6명 인사 단행

광주·전남 출신 한명도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통일부 차관에 엄종식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지식경제부 1차관에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 4부 2청 차관급 프로필 /

엄종식 통일부 차관

25년 경력의 ‘통일부 맨’으로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이라는 평. 정책 기획과장, 교류협력국 총괄과장을 역임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1급 자리인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안현호 지경부 1차관

선이 굵고 리더십이 있으며 조직 내 선후배의 신망이 두터운다는 게 공평적인 평가다. 과감한 업무추진력과 전문성으로 연구개발(R&D) 체계를 개선하고, 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

공직생활 30년의 절반 가까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보내고서 환경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망이 두터워 2002년 환경부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선정한 ‘달고 싶은 상사’ 5명에 포함됐다.



이채필 노동부 차관

행시 25회 출신으로 노동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노동행정 관료. 고용노동부로 개편을 앞둔 노동부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

세계 전문 관료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적절한 세계 개편을 통해 경제 회복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및 재계에서도 폭넓은 인관관계로 마당발로 통한다.



김동선 중기청장

통상전문가로 2008년부터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말 UAE 원전 수주 김 청장의 숨은 노력이 배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Large advertisement for '국립학점' (National Credi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about credit accumulation and university enrollment.